

강남♥이상화 결혼식, 김연아 등 연예·스포츠★총출동

태진아가 주례·이경규가 사회·가수 김필이 축하

각계 스타 만남답게 분야 넘나드는 유명인사 참석해 축하

연예계와 스포츠계 스타들의 만남에 결혼식장은 사상시장을 방불케 했다.

강남과 이상화는 지난 12일 정오 서울 광장동 워커히 호텔에서 가족과 친지, 동료와 친구들이 보는 가운데 백년가약을 맺고 부부가 됐다. 태진아가 주례, 이경규가 사회, 가수 김필이 축하를 맡았다.

각계 유명 스타들의 만남만큼 분야를 넘나드는 유명인사들이 총출동했다. SBS '정글의 법칙'에서 함께 한 문기비, '동상이몽'에 합

계 출연 중인 조현재·박민정 부부가 참석했다. 또 전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김연아와 쇼트트랙 선수 관윤기가 참석해 '국가 대표' 의리를 과시했다. 또 유인영, 양희은, 샘 오취리, 지상렬, 황광희, 김필, 김창렬, 윤정수, 김한 아나운서, 워너 이송훈, 최여진, 진아름, 조정민, 양정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각자 SNS에 강남 이상화와 찍은 사진을 게재하며 축제 분위기를 이어갔다. 박준형은 1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리틀 브라

더스 '강남쓰' 결혼 진심으로 축하해. '매애엔' 너무멋지고 자랑스럽다!"라는 글을, 가수 이루는 "축하한다 남아. 행복하게 살아 먼저 가줘서 고맙다"라는 글과 사진을 올리며 강남과 이상화의 결혼을 축하했다.

또 황지열도 "강남아 결혼 축하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자! #강남#이상화#미남미녀#최고의 하루가 되길"이라는 글을, 유인영은 강남과 함께 사진을 찍고 "피파신랑. 아름다운 신부님과 행복하세

요"라고 올렸다. 홍석천은 강남과 이상화의 결혼식 영상을 공개하는 한편 김연아 박찬호와 함께 사진을 찍으면서 "드디어 만났다"고 감격스러운 소감을 담은 글도 올렸다.

지난해 SBS '정글의 법칙'을 통해 인연을 맺은 강남과 이상화는 지난 3월 열애를 인정했고, 8월에는 공식적으로 결혼을 발표해 화제를 모았다. 이어 SBS '동상이몽2'를 통해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을 속속 공개하며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다.

강남은 지난 2011년 그룹 엠아 이비(M.I.B) 멤버로 데뷔했다. '나 혼자 산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정글의 법칙' '한집살림' 등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다. 이상화는 지난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500m 금메달,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500m 금메달, 2018년 평창 동계올

림픽 500m 은메달을 획득, '빙속 여제'란 별칭까지 얻으며 많은 인기를 모았다.



'나혼자산다' 팀 뭉쳤다

나래바에서 회동 "건강하자"

MBC '나혼자산다' 팀이 뭉쳤다.

12일 배우 이시연은 인스타그램에 "오예 우리 팀들! 건강하세요!"라는 글과 함께 '나혼자산다' 무지개 회원들과 함께 한 사진을 공개했다. 성훈 역시 같은 날 사진을 공개했다.

이시연, 배우 성훈, 만화가 기안 84, 모델 한혜진이 박나래의 집 '나래바'에 모였다. 이들은 함께 음식을 나눠먹으며 밝은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했다. 또 다른 사진에서도 나란히 어깨를 맞대고 포즈를 취했다. 미소를 지으면서도 왠지 무거워 보이는 표정이 팬들의 웃음을 자아내고 있다.

특히 최근 컨디션 악화로 방송을 잠시간 쉬었다가 복귀한 박나래, 잠정 하차 후에 오랜만에 무지개 회원 게스트로 '나혼자산다'에 나갔던 한혜진의 모습이 눈길을 끈다.

헤이즈 "이별 경험담 담은 '만추', 포장 않고 솔직하게 작업"



가수 헤이즈(28)가 자신만의 색깔로 가을을 해석한 앨범을 내놓는다. 'And July' '비도 오고 그래서' 'SHE'S FINE' '널 너무 모르고' 등 다양한 히트 곡으로 큰 사랑을 받은 헤이즈는 2014년 싱글 앨범 '조금만 더 방황하고'로 데뷔, Mnet '언프리티 랩스타2'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래퍼로서 모습을 드러냈던 헤이즈는 이후 노래에 집중, '음원강제'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헤이즈만의 독특한 음색과 솔직한 가사가 리스너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다.

▶더블 타이틀곡 '떨어지는 낙엽까지도'와 '만추'는 무슨 곡인가.

- '떨어지는 낙엽까지도'는 가을이라고 하면 쓸쓸하고 외롭고 마음이 아프고, 그런 걸 외상하게끔 하는데 제가 어느 날 낙엽을 보면서 이렇게 잎이 떨어지고 겨울이 오지만, 겨울이 지나고 나면 다시 따뜻한 봄이 온다. 더 아름다운 날을 위한 어떤 준비 과정이구나 생각이 들더라. 살면서 아픈 일들과 고난이 더 나은 삶을 위한 준비 아닌가 생각이 드는 날이 있었다. 그래서 이 곡 가사를 쓸 땐 삶의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고 가사를 썼다. 세상 떠나는 게 슬프지만 사실 떠나고 나면 더 좋은 세상이 펼쳐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만추'는 오래 만났던 연인이 그 사람이 저한테 어떤 말을 안 해도 눈치를 챌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를 보는 눈빛이나 이런 게 다른 사람이 생겼는지 알게 된 것 같은데 그걸 직접 듣고 싶

지 않아서 시간을 끌다가 먼저 '헤어지자'고 던지고 차갑게 돌아서는 과정을 그린 곡이다. 그 사람이 너무 착한 사람이어서 이해를 하고 원망하지 않고 떠나겠다고 하는 내용이다.

▶경험담이라고 했는데, 원래 곡 작업할 때 자기 이야기를 많이 쓰는 편인가.

- 제가 일기를 쓰는데, 곡을 쓸 때 그 일기 내용에 멜로디를 붙여서 곡을 쓰면서 곡 작업을 먼저 시작했다. 그래서 그게 제 작업 방식이 됐다. 그게 더 몰입도 잘 되더라. '만추'도 경험이다. 지금도 매일 메모라도 쓰는 편이다. 제가 곡을 쓸 때 주제를 가장 먼저 신경 쓴다. 그리고 가사와 멜로디를 그다음으로 생각한다. 노래마다 소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똑같은 사랑이고 이별이어도 그 안에 또 굉장히 다양한 이별이 있고 사랑이 있으니까 그걸 다양하게 담고 싶어서 소재를 잘 뽑

내려고 한다. 그리고 가사 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포장하지 말자는 것'이다. 공감할 수 있도록 그대로 솔직하게 쓴다.

▶'만추'는 크러쉬와 작업한 곡이다. 크러쉬와 호흡은 어땠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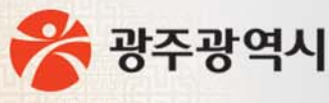
- '만추'를 쓰고 떠오르는 분이 크러쉬님밖에 없었다. 크러쉬님과 서로 친분이 없는 사이여서 직접 부탁할 수도 없어서 회사 통해서 제안하는지라 '떨까?' 생각했는데, 곡을 들으시고 바로 '오케이' 해주셔서 감동 받았다. 작업 속도가 정말 빠르시더라. 하루 이틀 만에 해서 보내주시고 너무 좋아서 그대로 픽스됐다. 작업하면서 한 번도 못 봤지만 너무 좋았고 순조로웠다. 크러쉬님 멜로디 라인이 필요했고, 뭔가 이 곡의 상황을 잘 마무리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생각났다.



▶'만추' 앨범 목표와 활동 계획은.

- 이번 앨범 듣고 타이틀곡 메시지가 좀 힘든 일이 있고, 이별을 겪고 슬픔이 찾아왔을 때도 그것만 믿고 나면 무조건 더 나은, 다음 장면으로 넘어간다고 믿으셨으면 한다. 그걸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떨어지는 낙엽까지도' 곡을 들으면서 힘을 냈으면 한다. 앞으로도 저는 진솔한 이야기를 담고 솔직한 모습으로 음악 들려드리는 가수가 되고 싶다.

광주만의 고유함과 독특함을 가진

광주 상설 국악 한마당

 광주광역시

일시	2019. 3월 ~ (매주 토요일 17:00)
장소	광주 공연마루(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시민로 3)
내용	시민과 함께 어울려 즐기는 전통, 퓨전 등 다양한 국악공연
문의	광주문화예술회관 (062-613-8351, 062-613-3181) ※ 관람료 무료